

#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277천 km <sup>2</sup>	GDP	1,008억 달러 (2014년)
인구	16.03 백만 명 (2014년)	1인당 GDP	6,285 달러 (201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S Dollar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00 (2014년)

-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 태평양 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830년 공화국을 수립함.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지방 원주민 풍속 역시 강하게 남아 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임.
-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EU와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인근국인 페루와 아마존 유역 영유권 다툼으로 국경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1998년 평화협정을 통해 국경선을 확정하고, 2011년에는 해양 경계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up>f</sup>
경제성장률	7.9	5.2	4.6	3.6	1.9
재정수지 / GDP	0.0	-0.9	-4.6	-5.2	-5.4
소비자물가상승률	4.5	5.1	2.7	3.6	3.2

자료: IMF.

#### □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저성장 전망

- 에콰도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 원유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2013년 에콰도르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성장률이 4.6%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에콰도르 최대 정유시설인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공장의 보수작업으로 인한 정유생산 감소 등으로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5년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현저히 악화된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는 달러공용화제도 채택으로 환율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달러 강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 □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채택 이후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

-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채택 이후 100%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2%, 200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6.1%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통제, 연료 보조금 정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3.6%를 기록하였음.

- 2015년 3월 에콰도르 정부의 2,800개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조치로 소비자가격 상승압력이 더해졌으나,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관련 재정수입 감소 등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확대 추세

- 에콰도르는 대규모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호황에 따른 관련 세수 증가 등으로 균형에 근접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유지해왔으나, 2013년에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 연료보조금 부담 증가, 대선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6%까지 대폭 확대됨.
- 2014년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공공투자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5.2%까지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부예산을 축소하였고, 신규 조세 도입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원유수출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5%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

-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GDP의 15%, 총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25%를 차지하는 등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및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
- 한편, 에콰도르의 제조업은 GDP의 12.1%(2013년 기준), 총수출의 16.5%(2014년 기준)를 차지하나, 대부분 가공식품, 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 달러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 에콰도르 정부는 3~5%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와 수출입 관련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해 2000년에 달러 공용화를 채택함.
- 그러나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내 통화량은 해외 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구리, 금, 은 등의 광물자원 보유

- 에콰도르는 석유개발기구(OPEC) 회원국으로 2014년 기준 80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임. 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2,983억 배럴), 브라질(162억 배럴)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함.
- 생산량의 경우 2014년 기준 평균 56만 배럴/일로 베네수엘라(2.7백만 배럴/일), 브라질(2.3백만 배럴/일), 콜롬비아(1백만 배럴/일), 아르헨티나(63만 배럴/일)에 이어 남미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음.
- 또한 구리, 금, 은, 니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2013년 에콰도르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단행하였음.
  - 2013년 개정된 광업법에서는 광산업 개발시 허가절차 간소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입찰과정 생략 등을 추진함.

## 다. 정책성과

### □ 원유 생산량 증대 및 정유시설 확대 추진

- 현재 에콰도르는 확인매장량이 10억 배럴인 ITT(Ishpingo, Tambococha and Tiputini) 지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원유 생산량 확대가 예상됨.
  - ITT 지역은 에콰도르 동쪽 아마존지역의 야수니(Yasuni)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2007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되었으나, 재정확보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8월 개발이 추진됨.
- 또한 정유시설이 충분치 않아 원유를 수출하고 고가의 정유를 수입하는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에콰도르에는 현재 총 3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정유설비의 하루 처리용량은 17만 6,000배럴로, 정유수요(2014년 기준 26만 5천 배럴)에 크게 미달함.
  - \* 모두 국영기업인 페트로인두스트리알(Petorindustrial)이 소유하고 있음.
  - 페트로인두스트리알은 노후화된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현대화 작업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베네수엘라 PdVSA와 공동으로 30만 배럴 규모의 태평양 정유공장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관료 부패, 정책 불투명성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저조

- 에콰도르는 높은 석유 의존도 극복,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의 단독투자 허용, 행정절차 단순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다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만성적인 관료부패 등으로 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저조한 수준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에콰도르는 175개국 중 110위로, 브라질(69위), 페루(85위), 콜롬비아(94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up>f</sup>
경 상 수 지	-261	-165	-983	-840	-3,387
경 상 수 지 / G D P	-0.3	-0.3	-1.0	-0.8	-3.3
상 품 수 지	-303	50	-493	-67	-2,041
수 출	23,082	24,569	25,686	26,604	23,412
수 입	23,385	24,519	26,178	26,672	25,872
외 환 보 유 액	1,597	1,012	3,328	3,484	1,943
총 외 채 잔 액	16,975	17,025	19,898	23,647	25,615
총 외 채 잔 액 / G D P	21.4	19.4	21.1	23.5	24.1
D S R	14.7	12.1	9.9	12.7	14.0

자료: IMF, IIF.

□ 달러 강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에콰도르는 중간재, 자본재, 연료 등을 주로 수입하며, 총수출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함.
- 2013~14년에는 연료(가솔린, 디젤, LPG 등) 수입 확대 및 미국의 관세혜택 종료에 따른 직물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되었음.

- 미국은 안데안통상촉진법(ATPDEA)을 통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해 마약퇴치노력에 대한 대가로 일반 작물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했으나, 2013년 에콰도르에 대해 동 혜택을 종료함.
- o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콜롬비아 및 페루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lvaguardia General)로 추가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액이 감소할 전망이나, 수입 감소액을 초과하는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는 2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2015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총 수입품목의 1/3가량인 2,800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45%까지 15개월간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기록

- o 에콰도르는 해외 근로자의 본금 송금액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로 소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o 2015년에도 안정적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예상되나,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부담은 낮으나 외채규모는 확대 추세

- o 채무탕감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는 20%, 공공부채는 30% 수준이며, 외채상환비율(D.S.R.) 역시 10%대로 외채상환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임.
- 과도한 공공부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에콰도르는 공공재정법(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 124조에 따라 공공부채 잔액을 GDP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도 도달시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o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및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따라 외채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5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6월 에콰도르 정부는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며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였고, 2015년에는 15억 달러를 추가 발행함.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여당 과반의석 확보로 안정적 정국유지 및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 2013년 2월 대선에서 저소득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좌파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56.7%의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함.
- 꼬레아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 허용, 권한 강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유희 토지에 대한 몰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제정을 통해 2009년 4월 대선에서도 압도적 지지율로 재임에 성공한 바 있음.
- 또한, 여당인 조국주권연합(Alianza Pais)의 의회 과반의석(100석/137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꼬레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경선 참가를 위해 대통령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현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지역, 인종,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에콰도르는 지역, 인종, 이념,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과 행정부에 대한 권력집중, 광산 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반대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함.
- 2010년 9월 경찰폭동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2012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아마존 대규모 광산 개발정책 및 유전 개발계획'에 대해 각 지역 대표가 수도인 키토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펼친 바 있음.
- 2015년 6월 키토 및 과야킬시 중심으로 정부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그러나 꼬레아 대통령의 강한 정책 추진력, 민생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사회적 불안은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담화를 제안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소득, 가격 보조 등을 통해 에콰도르의 빈곤율은 2010년 32.8%에서 2014년 22.5%로 개선되었음.

### 3. 국제관계

####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EU와 무역협정 추진

- 2009년 에콰도르는 EU-안데안 공동체(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개방범위에 대한 마찰로 협상에 불참을 선언하였고, 2013년에 EU-페루, EU-콜롬비아 FTA가 발효됨.
- 에콰도르는 전체 수출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인 EU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EU와 무역협정을 개시하고, 동년 7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16년 중 발효 예정임.

#### □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 자금 의존도 증가

-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재원이 부족한 에콰도르에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Coca-Codo Sinclair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정유소 건설, 구리광산 개발 등 에콰도르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기준 에콰도르 중앙은행 및 국영석유기업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의 중국 차입금 잔액은 각각 47억 달러, 11억 달러를 기록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빈번한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

- 에콰도르는 1830년 공화국 수립 이후 총 1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재조정을 반복함.
  - 파리클럽은 8차례(1983년, 1985년, 1988년, 1989년, 1992년, 1994년, 2000년, 2003년)에 걸쳐 에콰도르의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1999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유가하락, 자본유입 감소, 재정·통화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으로 브래디본드( Brady Bond) 및 두 개의 유로본드(Eurobond)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음.
  - 채무재조정을 통해 디폴트 발생 채권을 2012년 및 203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함.
- 2008년 12월 및 2009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자금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각각 2012년, 2030년 만기 채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이자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 2007년 1월 취임한 꼬레아 대통령은 대선 공약사항으로 외채 상환자금에 대한 재원을 사회복지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취임 후 구성된 공공부채 내부감사 위원회는 2005년 발행(2015년 만기) 외채를 제외한 두 종류 채권에 대해 불법성을 근거로 이자상환 불가 결론을 내림.
  - 다만, 2005년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는 상환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에콰도르 정부는 디폴트 발생 채권의 91%에 대해 원금의 35% 가격으로 환매함.
- 한편, 2015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ECA) 승인금액은 총 11억 달러(단기 6억 달러, 중장기 5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5억 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등급	(2014.10)	7등급	(2013.10)
S&P	B	(2015.08)	B+	(2014.08)
Moody's	B3	(2014.12)	Caa1	(2012.09)
Fitch	B	(2014.10)	B	(2013.10)

-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 12월 디폴트 선언 이후 에콰도르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후 여타 채권에 대한 정상적 원리금 상환, 양호한 경제성장률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되었음.

\* S&P: SD(선택적 디폴트) Fitch: RD(제한적 디폴트), Moody's: Ca

- OECD는 1999년 이후 에콰도르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해왔으나, 2014년 10월 6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4년 12월 Moody's는 Caa1에서 B3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S&P는 재정유연성 확대,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2014년 8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상향조정하였으나, 2015년 8월에 재정적자 확대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출 감소 전망에 따라 신용등급을 B로 재조정함.
- o 2008년 디폴트 발생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이 어려웠으나, 신용도 개선에 따라 2014년 10년채 발행(20억 달러, 7.95%)에 성공하며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였고, 이어 2015년 3월, 5월 두차례에 걸쳐 5년채(15억 달러, 10.5%)를 발행함.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0월 5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983년), 어업협력협정(1984년), 문화협정(198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3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에콰도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에콰도르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857	920	812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40	48	342	원유, 갑각류, 동제품
교 역 규 모	897	968	1,154	

자료: 한국무역협회.

- o 2014년 대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30.2%), 자동차부품(13.7%), 합성수지(10.7%)이며,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한-에콰도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여 향후 교역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원유의 경우 2014년 이전 수입품목이 아니었으나, 2014년 2.8억을 기록하며 에콰도르 최대 수입품목으로 자리매김함.

- 2015년 3월 말 기준 대 에콰도르 직접투자(누계 기준)는 총 33건(신규법인 수), 1.1억 달러(신고금액)이며, 업종별로는 광업(42.8%), 건설업(24.8%), 농업, 임업 및 어업(1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V. 종합의견

-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GDP의 15%, 총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평균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1.9%의 저성장이 전망됨.
- 2014년 에콰도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로 5.2%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부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유관련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꼬레아 대통령은 2013년에 3선 성공이후 여당의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선에서 연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비중은 낮은 수준이며 D.S.R. 또한 높지 않으나, 수 차례의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 ECA 자금에 대한 높은 연체율 등 취약한 외채 상황태도를 보임.

조사역 조현수 (☎02-6255-5712)  
E-mail: hsc@koreaexim.go.kr